



남원시 주민복지과, 김장김치 나눔 이웃사랑 실천

남원시 주민복지과(과장 방미자)는 14일, 전라북도 농이인 협회 남원시지회와 농이인 여성회가 소외된 이웃의 월동지원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에는 정양규 남원지회장과 김영순 농이인 여성회장 등 10여명이 했으며, 농이인협회 회원들이 직접 담긴 15kg(10박스)의 김장김치는 15일에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정양규 회장은 "몸이 불편하여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였으나, 이번에는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봉사활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미자 주민복지과장은 "추운 겨울에 농이인 협회 회원들의 훈훈한 마음과 온기가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전북본부, 'NH초록세상 제3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인후동에 위치한 인후지역아동센터(센터장 공은옥)를 찾아 'NH초록세상 제3호' 전달식을 15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유혜영 세이브리얼푸드 서부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지역아동센터에 스킨 디아모스로 만든 식물벽(Plant Wall)을 전달했다.

NH초록세상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녹색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농협은행의 ESG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인후지역아동센터 공무방에는 기존의 노후화된 벽을 대신해 기습 및 제습 기능이 뛰어난 천연 식물벽이 조성돼 학습공간 내 탄소 저감 및 실내 인테리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민 본부장은 "이번에 조성된 친환경 녹색공간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ESG 사회공헌 활동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NH교실숲』, 『NH초록세상』 등 친환경 탄소중립 사회공헌활동을 도내 전역으로 활발히 펼쳐나감에, ESG 선도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소방 전술훈련 현장 대응 역량강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119구조대 및 각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방 전술훈련 평가를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구일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 전술훈련' 평가는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과 업무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구조대 및 각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평가로, 화재·구조·구급 분야로 나누어 소방 활동에 기본이 되는 전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의 하반기 전술훈련 평가 종목은 포프하강 및 등반(구조분야), 염아산화소생술(구급분야),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화재진압분야) 등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강남십 방호구조과장은 "소방 전술훈련 평가는 상시 훈련체계 구축으로 개인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 활동의 기초가 되는 전술훈련 평가와 이를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해 손 잡았다

기전대 전북소상공인디지털전환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 전북소상공인디지털전환지원센터(박광철 센터장)는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김일 센터장)와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활성화 및 IP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디지털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전주기전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하 '전북소상공인디지털전환지원센터'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활성화 및 IP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협약체에서 박광철 센터장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하는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타 시도에 비해 온라인 시장 진출에서 소외된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전주기전대학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및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 발굴 및 홍보에 협력하고, 브랜드 개발 및



특허 확보 등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전북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계획이다.

전주기전대학 소상공인디지털특성화대학은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문교육과 소상공인디지털전환 분야의 온라인 매출 증대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간호대 대학원생들, 후배 위한 '아름다운 기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학부 및 대학원 후배들을 위해 3,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 간호대학 지정기금으로 대학 발전지원단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며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특색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 대한 애정으로 뜻을 모았다. 2016년부터 7년째, 이렇게 모아진 금액만 3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전북대는 이날 오후 3시 간호대학 석·박사 과정생 대표 등을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 박사과정 대표 장재영씨는 "우리 간호대만에 갖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며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 역시 또 다른 후배들에게 따뜻한 배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간호대는 2019년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간호대학 실습 교육 지원사업'에 호남권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실'... '사랑의 연탄배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배달을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15일 전달했다.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동일대 마을을 직접 찾아 노인과 한부모세대 등 취약계층 가구에 8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등 30여 가구에 연탄 3000여장과 등유 등 500만원 상당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 지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비용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사랑의 에너지후원금 모금액 200만 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전북대병원 급여 결전 모금액 300만원 등의 병원 사업비를 합한 것이다.

연탄 배달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사랑의 연탄 배달 활동으로 이날 연탄배달에는 유희철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과 직원 가족 40여명이 직접 참여해 손에 손을 모아 가정까지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지역 주민과 훈훈한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취약지구를 찾아 직



접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등 소외계층의 겨울철 난방을 위한 500만원 상당의 에너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중단한 2020년과 2021년에는 후원금을 모금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김영태 기자



남원 금지면, 다문화가족 간담회 개최

남원시 금지면(면장 안민엽)은 지난 14일 가족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유대감 향상을 위해 관내 다문화가족 18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원시가족센터가 주관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소통 목공예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과 친목 도모를 위한 기회가 제공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00씨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참여할 기회가 적었는데 아이들에게도 뜻 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안민엽 면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세대 가족간의 소통과 화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전주비전대, 작품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은 15일 2022년 졸업작품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개 학과, 13명의 학생이 총 9개의 동영상으로 촬영, 제작된 동영상 공모전 대상으로 지난 10일 2022년 졸업작품 동영상 공모전 심사를 열어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심사에 대해 공정성을 기했으며, 대상을 비롯한 9개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학생들에게는 약 2백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대상을 받은 전주비전대학교 컴퓨터정보과 2022년 졸업작품 작품 소개는 동영상으로, 완벽한 책임감과 플랫폼으로 구성돼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정상모 총장 "학생들이 오랜 기간 밤낮으로 공들여 제작하고 전시한 졸업작품에 대해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우수성과 발굴·전파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작품전의 수준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창의혁신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졸업작품전 총괄 운영을 맡은 김영진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전주비전대학교 학생들이 1년 가까이 창의적 사고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졸업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결과물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이는 향후 국내 우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핵심인재가 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농협-임실치즈농협, 나눔축산운동 전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김시중),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은 임실군 소재 임실교회 은빛경로대학을 방문해 나눔축산 이웃사랑 축산물 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임실치즈농협 임직원들이 농촌지역 주민들과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3백만원 상당의 임실치즈와 요구르트를 전달하며 나눔축산운동을 펼쳤다.

설동섭 조합장은 "코로나로부터의 일상회복을 위해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후원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1%나눔, 봉사·후원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 덕과면, 주민이 안전한 겨울나기 만전

남원시 덕과면(면장 안동준)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4일과 15일 안동준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과 이장이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140여 세대)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사전점검에서는 전기, 가스시설 등 동절기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그와 더불어 겨울철 운영 기구 안전 사용법과 화재 예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난방이 열악한 가구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경로당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는 등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안동준 면장은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변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물류무역학과, 취업특강 실시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학과장 송민근)는 지난 8일 취업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주)세노솔모터스 인사팀장인 김용진 매니저가 HRer의 인사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매니저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고스펙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재"라며 "적합한 인재란 자신의 강점에 맞는 직무를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활동으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임사했을 경우 해당 기업문화에 스며들어 이를 잘 활용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라고 설명했다.

강의 후 진행된 Q&A에서도 김 매니저는 참석한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취업 준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다.

한편 전주대 물류무역학과는 (주)윙윙윙윙의 산학협력으로 지난여름 인턴십 13명이 수료하고 정규직 8명을 배출, 취업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